

하늘길 늘었는데…‘여객기 참사’ 여파 무안공항은 ‘뚝’

국제선 수요 회복에 전국 운항률 6.8% 증가
광주·여수공항도 소폭 늘어…무안 30% 감소

지난해 국내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대를 넘어서 기운데 광주·여수공항의 항공기 운항 실적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무안국제공항은 여객기 참사 여파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외 항공기는 총 101만3830대가 운항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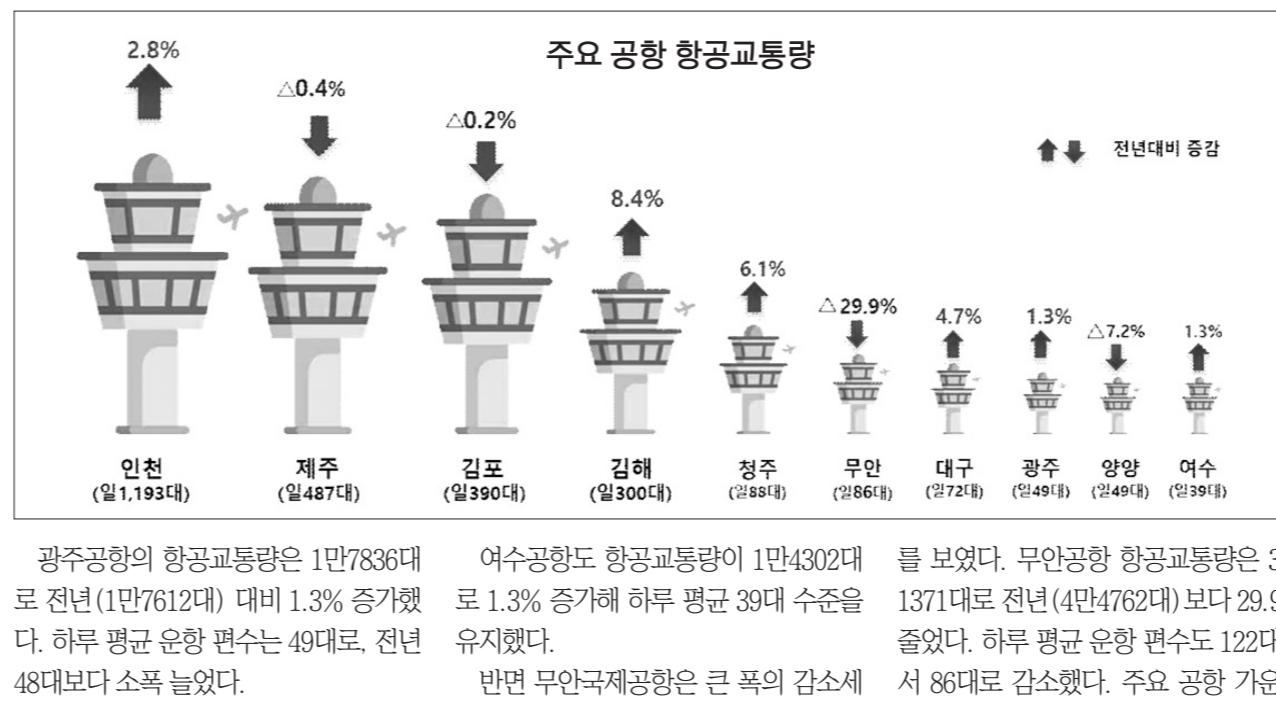
하루 평균 운항 대수는 2778대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보다 약 20% 많은 수준이다.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수요 회복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2160대로 전년 대비 9.4% 늘었고,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21.0% 증가했다.

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617대로 1.6% 감소했다.

전국 주요 공항 가운데 인천공항은 하루 평균 1193대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487대), 김포공항(390대)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이후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영향으로. 현재 집계된 항공교통량은 군용기와 훈련기 운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해 광주·무안·여수공항의 항공교통량을 합산하면 6만3509대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무안공항의 운항 감소가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선 수요 회복에 따라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운항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 민간 주도 ‘K-스페이스’ 전환 가속

엔진연소시험시설·전남샛 추진…제2우주센터 유치 총력

전남도가 고흥 나루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밸사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며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K-스페이스 시대의 전진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밸사·제작·시험·사업화를 한 권역에서 완결하는 원스톱 생태계를 앞세워 대한민국 우주산업 2막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나루우주센터는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 인프라다. 전남은 누리호 4차 발사 지원을 통해 반복 발사 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하며 민간 참여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

2022년 고흥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 특화지구로 지정되고, 2024년 우주발사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 핵심 거점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국가산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11개 엔카기업이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밸사체 제조와 핵심 부품 산업이 집적되며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가 본격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조성에 착수했다. 2026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민간 전용 엔진연소시험시설을 구축하고, 100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기업 기술자립 연계형 지역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험·검증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민간 기업의 기술 실증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발사체에 국한하지 않는다. 70억원 규

모의 초소형 위성 ‘전남샛’ 개발도 병행 한다.

발사·위성·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체계를 완성해 우주 데이터 활용 산업까지 외연을 넓힐 것이다.

고흥 일원에는 민간 전용 발사장, 밸사체 조립시설, 주직·윤용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국가산단 입주 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센터를 통해 설계·제작·시험·발사를 지역 내에서 일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장거리 이송 부담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실증·사업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산업 확장 전략도 병행된다. 나루우주센터 인근에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를 모델로 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해 교육·체험·전시를 결합한 국민 참여 공간으로 육성한다.

밸사 현장과 연계한 콘텐츠를 통해 우

주기술을 관광·교육과 연결하는 상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7년 국고 신규사업으로 ‘지·산·학·연 연합 캠퍼스 구축사업’도 검의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업 활동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내실화한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현재 인프리를 기반으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 진흥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가 발사 수요에 대응할 발사 인프라와 정책·연구·산업을 총괄할 전담기관을 확보해, 발사 중심지를 넘어 국가 우주산업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출발한 곳이자, 민간이 주도하는 K-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중심지”라며 “축적된 발사 성과와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전남이 국가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설 명절 전 기간을 기축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단계별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농협 전남본부, 기축전염병 유입 차단 ‘총력’

사전 흥보·상시 소독·집중 점검…총 3315건 방역

농협 전남본부가 설 명절 전 기간을 기축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단계별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남본부는 이날 곡성군 석곡면 일원에서 곡성 농·축협, 곡성군청 축산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범농협 기축질병 방제단’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석곡농협이 보유한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농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병행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시·군 축협에서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을 긴급 편성하고, 농협이 보유한 광역방제기를 함께 투입해 범농협 차원의 특별 방역체계를 수립·가동 했다. 특히 전남 관내 축산농가와 농장 진

입도로 등 주요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총 3315건의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광주송정역 앞 광장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방문자제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는 전단지를 배부하며 차단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각종 축질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동이 많은 명절 기간은 방역 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사전 흥보부터 연휴 기간 상시 소독, 명절 이후 집중 점검까지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기축질병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대상…23일부터 접수

광주시가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패키지 지원한다.

광주시 일자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근무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명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는 △임산부 전용 의자 무료 대여 △임산부 맞춤형 직장생활 구리미 제공 △출산·육아휴직 관련 개인노무사 컨설팅 등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이용자들의 견의사항을 반영해 직장생활 구리미 일부 품목을 개선했다.

임산부 전용 의자는 일반 사무용 의자와 달리 임산부의 신체 변화를 세심하게 고려해 제작됐다. 등판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 접이식 발 반침대가 있어 다리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며, 최대 180도까지 늘릴 수 있어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다. 대여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이며, 설치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전용 의자와 함께 제공되는 ‘직장생활 구리미’는 실제 근무 현장에서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 위주로 구성됐다. 기 본 구성품은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담

요, 육아대백과이며, 여기에 틴살 크림, 입덧 완화 식품, 디데이(P-DAY) 달력을 새롭게 추가해 총 6종으로 꾸몄다.

노무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전화나 전자우편 상담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보상 보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 직원은 법적 권리와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임산부로, 출산휴가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법인은 물론, 본사가 타 지역에 있더라도 광주 근무지가 30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 우편(jdy2021@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약식은 광주시 누리집과 광주시 일자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 만족’ 평가를 받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양보근 광주시 일자정양립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 일시 | 2026. 2. 19.(목) 10:00 | 장소 | 남구청 열린민원실



광주은행은 19일 광주 남구청에서 김병내 남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출연

업체당 최대 5년간 2000만원 지원…4.0% 이차보전도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19일 광주 남구청에서 김병내 남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남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보는 총 2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남구는 1년 간 4.0%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신보, 해남 소상공인 50억 특별보증

전남신용보증재단은 해남군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6 땅끝해남 특별출연협약보증’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행하는 협약보증은 해남군이 전남신보에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5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협약보증은 해남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보증수수료를 연 0.8%까지 인하해 지금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율리 해남군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